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115호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뉴스]
배달에 울고 웃는
자영업자
배달비 부담은 누가?
02

코스피 2037.10 (+26.85)
코스닥 672.84 (+8.35)
금리(국고채 3년) 1.81 (+0.01)
환율(원·달러) 1118.60 (-5.90)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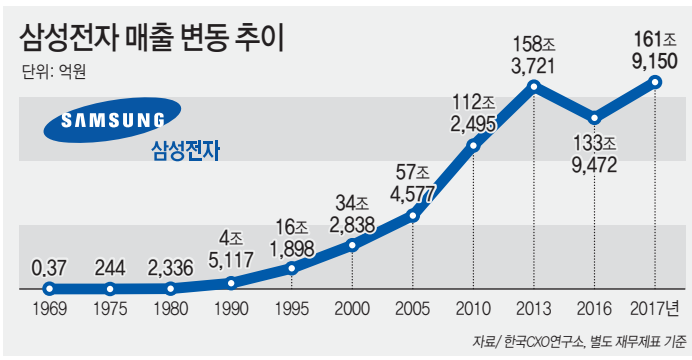
글로벌 IT기업의 명암

36명 직원이 10만명, 3700만원 매출이 248조원으로

삼성의 50년, 더 궁금한 미래 50년

혁신·투자·세계화 통해 50년만에 매출 437만배 ⬆

반도체·전장·미래가전 등 미래 50년 성장동력 집중



삼성전자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해 매출액 예상치가 역대 최고치인 24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혁신·투자·세계화로 매출 437만배 성장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첫해 매출액은 3700만원, 직원은 36명이었다.

50년만에 매출액을 437만배나 늘린 셈이다. 직원 수도 10만명 이상으로 3000배 가까이 많아졌다. 외국 지사와 공장까지 합치면 직원수는 32만명을 넘어선다.

이 같은 성공 비결로는 ▲끊임없는 혁신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제품과 서비스의 세계화가 꼽힌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날 발간한 '1969~2017년 삼성전자 경영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른바 '인삼(In-3) 전략'이다.

능력있는 경영자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오 소장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은 고(故) 강진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회장을 오가며 삼성전자를 반도체 중심 회사로 탈바꿈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뒤를 이어 이윤우 전 부회장과 윤종용 전 부회장 등 능력있는 인물들이 10년 이상 회사에 머물면서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시켰다.

◆미래 성장동력도 완성

삼성의 미래 50년도 이목이 집중된다.

전장 사업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상태다. 최근 전장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아우디에 공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만 인수 효과도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사업은 꾸준히 확대될 예정이다. 당장 아이오셀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센서로 일본 소니 중심 체제였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도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차세대 메모리도 기대가 높다. STT-M램이 S램을 대체할 캐시메모리로 주목받는 가운데, 내년에는 하드디스크와 D램을 통합하는 P램도 양산과 상용화를 재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래 가전 부문에서도 미래 주도권을 선점한 상태다. 스마트싱스를 인수하고 가전 통합을 주도하는데 이어, AI 빅스비 생태계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SDI가 자동차용 배터리,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등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얼마나 활약할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래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를 좌우할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을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36만 l 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 제2의 반도체 산업인 셈이다.

리스크는 있다. 정부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 경쟁 업체들도 투자에 나서는 반면, 삼성은 '삼바 사태'로 투자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CES 2019서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대거 공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삼성전자 전시관 입구에서 모델들이 초대형 LED 사이니지로 구성된 파사드가 설치돼 첨단 기술이 만들어가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삼성전자의 전략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삼성전자

"가치 창조 '선도형 경제' 혁신적 중소기업이 주체"

文대통령 中企·벤처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새해부터 '경제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알림과 동시에, 올해 중소기업이 경제활력을 주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방문하며 중소·벤처기업계 스킨십에 열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혁신창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은 새해 우선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다"며 "올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경제의 주역'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 창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신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은 중소·벤처기업인들 질의에 따른 답변과 토론으로 화답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문 대통령 발언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또 '내가 사전에 발언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42년 지난 애플, 혁신 사라지며 침몰

1분기 실적 전망 5~9% ⬇
주가도 140달러 대로 추락

까다로운 폐쇄정책 포기
타사 연동 수익 발굴나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TV에서 자사 서비스인 아이튠스와 에어플레이2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폰 판매량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 서비스 부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애플 왕국'이 침몰하고 있다.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세로 돌아선데 이어, 이번 분기 실적도 당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됐다. 반등을 위해 굳게 지켜왔던 폐쇄정책도 포기하려는 상황이다.

◆애플 시총, 6개월만에 '폭삭'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기준 2019년 1분기(2018년 9월~11월) 매출 전망치를 840억달러로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5~9% 낮다.

애플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해 10월 주당 232달러에서 올들어 140달러대로 추락했다. 시가총액도 1조원 수준에서 7000억달러로 줄었다.

매출 하락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나마도 제품 가격을 억지로 올려 거둔 미봉책이 불과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X(텐) 가격을 최대 150만원으로 책정한 데 이어, 최신작인 아이폰 XS 맥스는 최대 196만원까지 올렸다. 동급 안드로이드 기종 최상위급 모델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가 전분기에 진행됐고, 달러화 강세와 신흥시장 약세 등 악조건이 이어졌음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애플이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더 이상 혁신이 없다며, 디즈니와 테슬라 등 기업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76년 4월, 컴퓨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라 한 세대 이상을 풍미했던 애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성벽' 허문다

애플은 아이폰 대신 서비스 부문에서 108억달러 이상 매출을 냈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서비스부문 매출을 연간 500억달러까지 키우겠다는 목표에도 한발짝 가까워졌다. 서비스 부문 사업은 앱스토어와 클라우드, 애플 페이 등을 가리킨다. 애플이 아이폰 등 기기가 아닌, 플랫폼을 이용해 새로운 수익처 발굴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애플은 '폐쇄 정책'도 포기하려는 모습이다. 시작은 신형 아이패드 프로였다. 고유의 라이트닝 단자를 포기하고 USB-C 단자를 달았다. 차세대 아이폰에도 USB-C가 장착될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기기 생태계도 엄격하게 컨트롤하던 애플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CES 2019'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방까지 선언했다.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성 스마트TV에 아이튠스와 에어플레이2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타사 제품과 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가 합종연횡을 가속화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애플도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웅 기자